

FX 진단 & 전망



김호정 Economist
hojung.kim@yuantakorea.com

임지윤 Research Assistant
jiyeon.lim@yuantakorea.com

균형점을 찾아가는 DM 통화, 뉴노멀의 한국

1) USD: 재정이 만들 신기루, 구조적 약세의 시작

2026년 미국 달러의 궤적은 1분기~2분기 초의 일시적 달러 강세를 전망한다.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이 아닌 섯다운 종료의 반작용과 정책에 기인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2분기 이후 전개될 달러 약세는 Fed 의장 교체와 유럽의 재정 부양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2분기는 정책의 시차 효과와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달러 약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섯다운의 반작용과 'OBBA' 모멘텀의 결합

섯다운 종료 효과와 착시

역사적으로 1995년, 2013년, 2019년 정부 섯다운이 종료된 직후 분기에는 억눌렸던 경제 활동이 일시에 재개되면서 GDP 성장률이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2025년 4분기 섯다운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었던 연방 정부의 조달 계약, 공무원 급여 지급, 국방 관련 지출이 2026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이러한 지표의 반등을 '미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탄력성'으로 해석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인 달러 매수세를 자극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 특히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등 핵심 지표 발표가 지연되었다가 한꺼번에 긍정적인 수치로 발표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달러 선호 심리가 확대될 것이다.

'One Big Beautiful Act (OBBA)'의 본격적인 발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OBBA(One Big Beautiful Act)'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며 1분기 경제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감세를 넘어선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 팁(Tips)과 초과 근무 수당(Overtime Pay) 면세: 서비스업 종사자와 중산층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이 조치는 소비 심리를 즉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소비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므로, 1분기 소매 판매 지표의 호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100%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의 영구화: 기업들이 설비 투자 비용을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2026년 초반에 집중시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의 달러 실수요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법인세 인하 효과: 향후 2년간 추가 인하 조치를 통해 약 1,29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지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1분기 달러지수는 99-101 레벨을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EUR/USD는 1.14-1.16 수준에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이후: 연준의장 교체 및 연준 독립성 훼손 리스크와 연준의 비둘기파적 선회

1분기가 지나고 섰다운 반등 효과와 OBBBA의 초기 재정 집중이 약해지면, 시장의 시선은 급격히 Fed 의장 교체와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으로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분기 중반부부터 달러의 약세가 시작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연준의장 체제 하에 정책 불확실성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시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에서는 케빈 해시의 지명 확률을 50% 이상으로 소폭 높게 점치고 있다. 케빈 해시의 등장은 연준 역사상 가장 급격한 '비둘기파(Dovish)'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 공격적 금리 인하 선호: 케빈 해시는 공개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Behind the curve)"고 비판해 왔으며,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며, 취임 직후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 연준 독립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케빈 해시가 연준 의장이 될 경우, 행정부의 방향이 통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 시장에 이미 지배적이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하락(Term Premium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으로 연결된다. 채권 투자자들은 케빈 해시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까지 금리를 낮출 것을 우려하여 장기채를 매도할 수 있고, 이는 Yield Curve의 가파른 스티프닝을 유발할 소재이다.

성장률 둔화와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이 만들어낼 구조적 약세

결국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1.8~2.0% 수준의 잠재성장률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금리의 누적 효과가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는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금리 격차 축소: 연준은 202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3.50% 수준으로 1회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CB는 2.0%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 BOJ는 빠르면 이번 12월 늦어도 1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의 비동조화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달러 약세 압력을 확대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달러 약세가 일시적 조정이 아닌 장기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달러는 1분기 강세 이후 2분기부터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 DXY의 연중 밴드 하단은 92~94수준으로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강달러는 종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2) EUR: 재정 효과와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만들 강세

독일의 재정 투입과 성장을 확보를 통한 가치 상승

2026년 유로화 반등의 핵심 동력은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에서 나타날 것이다. 독일 의회는 2025년 3월, 국방비 증액과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Special Fund)' 조성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독일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안정'에서 '투자'로 대전환했음을 시사한다. 해당 재정 지출은 향후 12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며, 2026년 예산안에서만 약 489억 유로의 특별기금 지출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독일 재무부는 2025년~2029년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를 0.8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IB에서는 1.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장기 부진은 수출 경쟁력 상실과 더불어 내수 투자 부족에 기인했다. 실제로 독일의 공장 주문 데이터를 보면 해외 수요보다 국내 수요의 감소폭이 훨씬 컸다. 이번 인프라 투자는 내수 경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높은 재정승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막대한 재정 지출은 성장을 제고 효과를 가시화할 것이며, 이는 기저효과와 맞물려 유로존 펀더멘털을 개선하고 유로화에 강력한 강세 압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통 인프라: 철도망 현대화와 도로 보수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 디지털 전환: 낙후된 통신망과 행정 전산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180억 유로 이상이 배정되었다.

* 에너지 전환: 2045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에 1,000억 유로 이상이 할당된다.

* 국방: NATO 분담금 증액 압박과 유럽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국방비 지출이 GDP의 2%를 상회하도록 보장한다.

ECB의 딜레마

독일의 대규모 재정 확장은 총수요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ECB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된다. ECB는 G10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부근에 도달했지만, 독일발 재정 자극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CB 내부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종료되었다"는 매파적 발언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독일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적인 임금 상승 압력이 결합될 경우, ECB가 2026년 말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은 이 가능성을 약 30%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EUR/USD 환율 전망: 1.20 돌파를 시도

독일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과 ECB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유로화의 강세 압력으로 연결되는 동력이다. 컨센서스는 1.18-1.22 밴드로 형성되고 있으며, 당사도 해당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달러 약세와 맞물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서 환차익으로 인한 유로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3) JPY: 이어진 약세 종료

BOJ의 금리 인상 명분은 충분히 확보

2026년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이슈는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수다. 일본은행은 2025년 12월 19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해 통화정책 정상화가 본격화됐으며, 2026년에도 꾸준한 금리 인상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BOJ가 약 6개월 간격으로 25bp씩 인상하여 2026년 말에는 정책금리가 1.00-1.2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지난 1일 나고야에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었다"며 금리 인상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2025년 10월 기준 일본의 실질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며 내수 소비 여력을 확충했다. 2026년 춘투(임금 협상)에서도 5%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BOJ의 금리인상에 대한 명분은 확보되었다. 또한 일본의 CPI는 2% 중반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넘어 인플레이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CPI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BOJ의 금리인상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엔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BOJ의 금리 정상화를 용인하는 입장이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이 국채 이자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점진적(Gradual)' 속도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은 통화정책 조정 속도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나리오

2026년 글로벌 금융 시장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일 금리차는 2025년 초 약 400bp 수준에서 2026년 말 200bp 수준으로 절반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헤지 비용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금리 차이는 캐리 트레이드의 기대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는 임계점이다.

* 규모: 글로벌 시장에 풀린 엔 캐리 자금은 약 1조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10~20%만 청산되더라도 외환 시장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 수요가 발생한다.

* 타겟: 주로 멕시코 페소, 브라질 레알 등 신흥국 고금리 통화와 미국 나스닥 기술주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이탈하면서 해당 자산의 가격 조정과 엔화 가치 급등을 동시에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특정 임계점을 넘을 때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선형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주시해야 할 임계점으로 다음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 금리 임계점 (JGB 10Y 2.0%):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 수준을 상회할 경우, 환헤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일본 국내 채권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을 상회하는 구간에 진입. 이는 일본 기관투자자들이 환율 리스크를 감수하며 해외 채권에 투자할 유인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 환율 임계점 (USD/JPY 142엔): 기술적으로 142~145엔 구간은 강력한 지지선이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다. 2024년 8월 청산 당시에도 환율이 160엔대에서 145엔 아래로 급락하며 패닉 셀링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레벨을 하향 돌파할 경우, 심리적 매도 압력 강화와 함께 레버리지 포지션의 강제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폭락장 당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본국 송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해외 채권을 7조 엔 이상 순매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캐리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는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포지션의 쓸림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142~145엔 지지선을 하회하는 구간에서 투기 포지션의 'Stop-loss(손절매)' 물량에 의해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BOJ의 정책 기조 전환으로 엔화 변동성이 확대되면, 리스크 패리티(Risk Parity) 펀드 등 알고리즘 기반 투자자들은 기계적으로 포지션을 축소하게 되며, 이는 '자산 매도-엔화 매수'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26년 말 기준 미-일 금리차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면 이 비율이 낮아져 캐리 트레이드 매력력이 소멸될 것이고, 특히 알고리즘 기반 펀드들이 이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계적 청산에 나설 수 있다.

USD/JPY 환율 전망: 130엔은 무리지만 140엔에 가까이

USD/JPY 환율은 2026년 1분기 154~155엔 수준에서 하락세로 전환하여, 연말에는 142~144엔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130엔대 복귀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지만 130엔대 수준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우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은 일본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이라는 점에서 엔화의 극단적 강세는 제한적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일본도 한국과 같이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구조가 약화되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대기 물량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점도 130엔대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ed의 최종 금리(Terminal Rate)가 3.0~3.25% 수준에서 멈춘다면, 일본 금리(1%대 예상)와의 격차는 여전히 2%포인트 이상 존재한다. 엔화 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청산되기에는 여전히 달러 금리가 매력적인 상황으로 이는 엔화가 130엔대로 급격히 쓸릴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4) CNY: '관리된 안정'과 떨치기 힘든 디플레이션

중국은 2026년에도 '관리된 환율(Managed Floating)'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인민은행(PBoC)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평가절하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위안화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환율 방어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라는 구조적 족쇄에 묶여 있다. IMF와 주요 IB들은 2026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5% 수준으로 전망하며, 과거의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음을 확인했다. 특히 중국은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인해 생산자물가(PPI)와 소비자물가(CPI)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인민은행(PBoC)은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지만, 위안화 약세를 방어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2026년 인민은행은 기준율과 정책금리를 1회 수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역시 디플레이션이 1%대에 추세적으로 도달해야 가능한 선택지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민은행은 7.30 위안을 심리적 지지선으로 설정하고, 고시 환율(Fixing Rate)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다. 2026년 위안화는 급격한 변동보다는 박스권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5) KRW: '1,400원 대 뉴노멀'의 구조적 고착화, 달러와 디커플링

구조적 약세를 만드는 달러화 수급 불균형

한국은 대미 투자와 더불어 거대한 금융 자본 유출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이던 달러보다, 자본수지 적자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거나 대등한 상황이 고착화되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5년 11월까지 1300억 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원화 약세의 또 다른 구조적 원인이다. 국민연금은 FX Swap 등을 통해 현물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달러 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2025년 11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확정되었을 때 정부와 시장은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했다. 그러나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이 여전히 크고,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원화 채권을 매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액티브 자금이 이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내놓으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2026년 원/달러 환율 전망: 1,380원 - 1,4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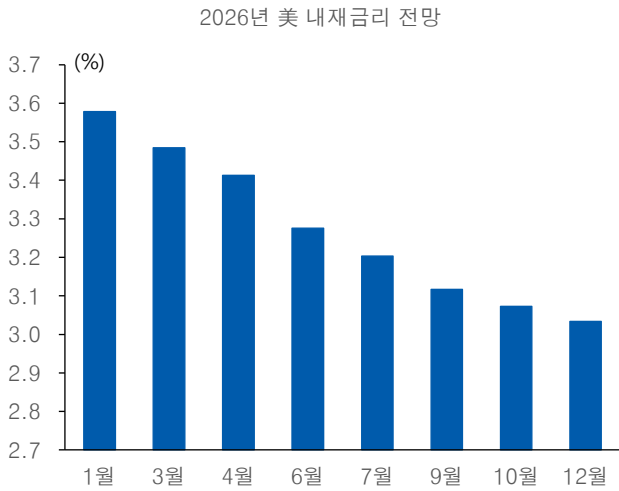
2026년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1,460원으로 전망한다. 2분기 이후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국내의 구조적 자본 유출 압력으로 인해 1,400원 아래로의 하락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외화의 국내 순공급이 경직적인 흐름이 지속될 구조적 가능성에 있다.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수로 대외자산과 경상흑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경상흑자에도 대외금융자산의 순증이 지속되며 외화의 순공급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외화가 국내로 공급되지 않고 미국으로 유출되고 해외투자 선호가 지속되는 한 외화수급의 경직적인 흐름이 더 심화되어 원화의 균형 가치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상수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2025년 하반기 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된 이후, 2026년부터는 글로벌 패시브(Passive) 자금의 기계적 추종 매매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액티브 자금의 유출되었을 수 있으나, 지수를 100% 추종해야 하는 거대 패시브 펀드(연기금, 국부펀드 등)는 2026년부터 매월 일정 비율로 한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 이는 매월 수조 원 규모의 '환헤지를 동반하지 않는(Unhedged)' 원화 매수 수요를 창출하여,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상수(Constant)'가 될 수 있다.

2026년은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가 수치로 확인될 시점이다. 과거 일본 증시가 엔저와 거버넌스 개혁으로 재평가 받았듯, 한국 역시 주주 환원율이 개선된 저평가 금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정부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원화 자산 비중 확대를 위한 환전 수요를 자극하는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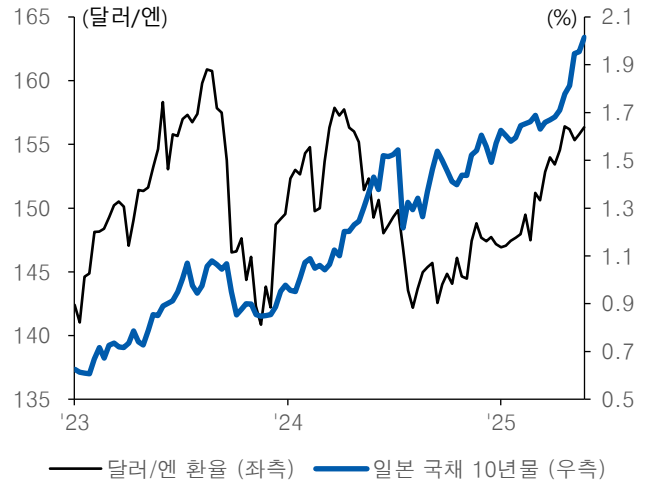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박스권에서 안정화될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에 의해 더 크게 확대되는 '이익 개선형 흑자' 구조(교역조건개선)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수입업체들의 달러 결제 수요를 낮춰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 우위를 약화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조선업체들의 수주 대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에도 원달러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의 복귀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단은 1,380원으로 전망한다. 분기별로 1분기 1,450~1,480원, 2분기 1,420~1,450원, 3분기 1,390~1,430원, 4분기 1,380~1,410원을 전망한다.

미국 채권선물 시장은 2026년 말까지 최대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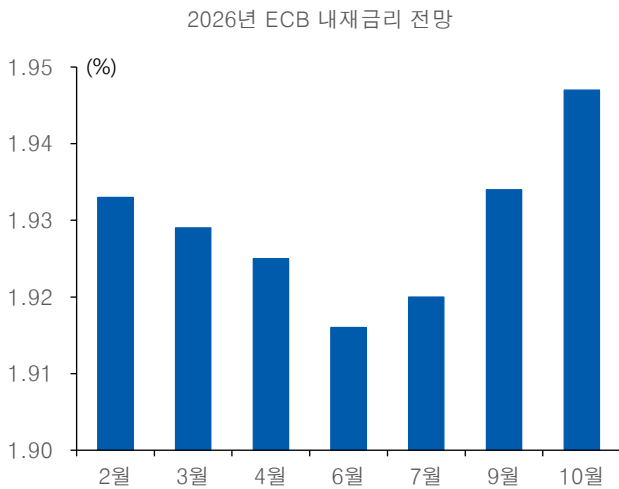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2월 BOJ가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며 日 10년물 국채금리는 2%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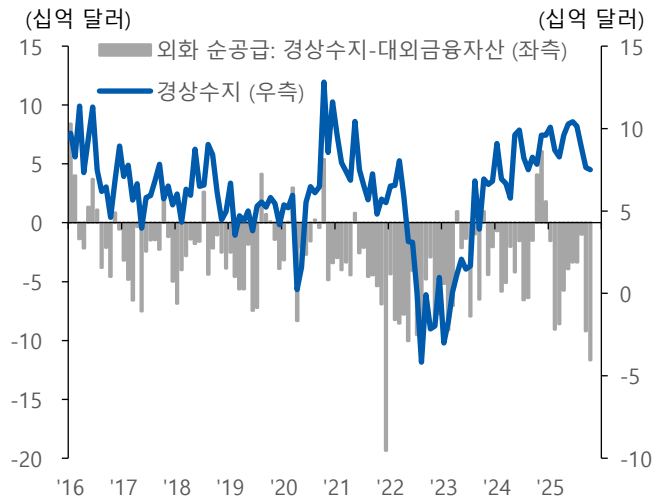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유럽 OIS 시장에서는 2026년 말 1회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 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경상흑자와 대외금융자산 격차를 살펴보면, 외화의 순유출이 지속됨을 확인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김호정)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